

<p><b>데살로니가전서 서론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데살로니가전서는 A.D. 51-53 년경 2 차 전도여행 중이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써 보낸 편지다.</li> <li>● 데살로니가전서는 핍박 중에도 믿음을 잘 지킨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감사(1-3 장)와 디모데를 통해서 그에게 전해온 데살로니가 교회의 질문에 대한 답변(4-5 장)으로 구성된다.</li> </ul>
---

<b>I.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감사(1-3장)</b>		
1. 사실(Fact)	2. 의미(Meaning)	3. 적용(Application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박해 중에도 보인 신앙의 본 (1:2-10)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믿음의 역사</li> <li>② 사랑의 수고</li> <li>③ 소망의 인내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건강한 교회는 신앙의 본이 되는 교회이다.</li> <li>● 믿음이 뿌리라면 생활(역사)은 열매이다. 믿음과 생활은 하나이다.</li> <li>● 사랑 없는 수고는 짐이 된다.</li> <li>● 소망(비전)은 인내의 원동력이다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나는 무엇으로 교회에서 본이 되고 있나?</li> <li>● 우리 교회가 소문난 교회인가? 그렇다면 무엇으로 소문난 교회인가?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바울의 사역 자세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반응 (2:1-16)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복음을 위해 아침이나 탐심의 탈을 쓰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역 (2:4-5)</li> <li>② 성도들에게 권위를 주장하기 보다 유순한 유모가 자녀를 기름 같이 한 사역 (2:8)</li> <li>③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징계함 (2:11)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사역의 목표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꿈(하나님께 합당한 삶)을 이루려 함이다 (2:12).</li> <li>● 사역에는 모성적인 부드러움과 희생적 사랑이 있어야 하고, 동시에 부성적인 엄격한 가르침이 있어야 한다.</li> <li>●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생활면에서는 고난을 이기는 좋은 신앙의 본을 받아야 한다. 그 때 주님 재림 시 자랑의 면류관이 된다 (2:19)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내가 사역자라면 나는 어떤 자세로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가?</li> <li>● 내가 성도라면 나는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고 있는가?</li> <li>● 주님 강림 시 나에게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될 사람은 누구인가?</li> </ul>

<b>II.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한 실제적 교훈(4-5장)</b>		
1. 사실(Fact)	2. 의미(Meaning)	3. 적용(Application)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(4:1-12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성적 음란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라.</li> <li>② 서로 사랑하며 살라.</li> <li>③ 근면하게 살라 (규모 없이 살지 말고).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세상 종교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지만, 기독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. 이것을 모르면 세상보다 못한 교회의 모습이 된다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거룩은 구별됨이다. 나는 세상과 구별된 성도로서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고 사는가?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주의 강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 (4:13-18)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재림 전에 죽은 성도는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주님과 함께 있고 육신은 재림시까지 잠시 자고 있는 것이다. 예수님 재림 시 그들의 영혼도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고 그들의 육신은 자던 자 중에서 일어나게 된다 (4:13-14)</li> <li>② 부활의 근거는 예수님의 부활이다 (4:14).</li> <li>③ 휴거의 순서는 죽은 자가 먼저이며 재림 때까지 살아 있는 자가 나중이다 (4:15-17).</li> <li>④ 휴거의 목적은 성도들이 연합하여 주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다 (4:17).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잘못된 종말론은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죽음 앞에서 슬퍼하게 된다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나는 사랑하는 자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슬픔을 이기는가?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 (5:1-24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주의 날이 밤에 도둑 같이 임하므로 깨어 정신차리고 살아야 한다 (5:1-11).</li> <li>② 항상 기뻐하라 (5:16).</li> <li>③ 쉬지 말고 기도하라 (5:17).</li> <li>④ 범사에 감사하라 (5:18).</li> <li>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(5:19).</li> <li>⑥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(5:20).</li> <li>⑦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(5:22).</li> <li>⑧ 영과 혼과 몸이 주님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게 하라 (5:23).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성경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었고 앞으로도 성취될 것이다 (민 23:19).</li> <li>●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성화된 모습으로 재림주를 만나기를 기대하신다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도둑같이 재림하실 주님을 나는 지금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?</li> <li>● 나는 성령의 불을 소멸한 적이 없는가?</li> <li>● 나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 위해 나는 지금 어떤 결단을 하고 싶은가?</li> </ul>